

中央防水劑

世界를 制霸한 發明企業人



〈柳重根 사장〉

本會 主權로 서울京釜高速터미널에서 지난 9月 27日부터(12月 26日까지) 열리고 있는 發明特許品流通販賣展示場에 마련된 「優秀發明特許受賞品코너」에 들어서면 한 發明企業人의 防水劑가 눈길을 끈다.

牢固體상태의 고무·아스팔트 제품으로서 재래식 아스팔트의 경우 도로 포장시 8점의 복잡한 공정으로 시공하는데 비해 한 점과 塗膜만으로 공사를 끝낼 수 있어 시공방법이 간편할뿐만 아니라 수명도 재래식 아스팔트보다 3배나 길다.

4년간의 연구끝에 지난 79년에 개발한 워터스톱(特許 第6488號)은 염화비닐에 비스케놀과 포트리케비들을 化學처리해 가공한 防水劑로 수성과 油性 2가지 종류가 있다.

油性은 종이·나무·피혁·천 등에 사용할 수 있는데 콘크리트의 벽·붉은 벽돌·타일면·블럭면 등에 두번만 칠하면 10년 이상의 수명과 본건물의 철연색을 생생하게 보존할 수 있으며 수성은 시멘트콘크리트와 혼합, 물이 나오는 토목공사장 등에 사용하는데 時差조정에 의해 完全防水할 수 있으며 혼합강도는 일반 시멘트보다 30%이상 높은 高性能 防水劑이다.

또 워터류 防水劑(特許 第18825號)도 소재면에 강력히 침투하며 탄력성이 있는 피막을 형성하는 防水劑로서 내약품성, 내마모성, 내후성뿐만 아니라 방진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표면에 다양한 색상을 나타낼 수 있어 도장까지 할 수 있다.

本會 會員인 發明企業人 柳重根 사장(中央防水企業(株))이 25년의 긴 産苦 끝에 分婉한 玉童子이기에 觀覽客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發明企業人 柳重根사장! 不惑을 넘어서 50代를 바라보는 그는 弱冠에 企業을 設立, 發明을 맡겨줌으로 防水劑 業界의 獨步의 位置를 確保했다.

그가 發明한 防水劑는 第6回 및 第9回 뉴욕 國際發明展에서 金賞을 受賞함으로써 國際적으로 品質의 優秀性を 公認받은 한편 第4次 全

中央防水는 이처럼 우수한 제품을 發明하여 防水業界에서 확고한 위치를 굳혔다. 이들 發明品은 中央防水 이천공장에서 대량 생산, 전국의 건설현장에 공급되고 있다.

지난해 이후 中央防水가 시공한 건축물은 주택은행 본점, 대한증권 협회 회관, 대신증권 사옥, 대한상공회의소회관, 건설회관, 공간연구소 사옥, 부곡 로얄호텔, 안성농업전문대학, 치안본부청사, 공군사관학교, 도로교통안전협회 등등 수없이 많다.

中央防水는 또 서울지하철공사에서 약 1/6에 해당하는 구간을 시공하였고, 올림픽 경기장의 펜싱경기장, 체조경기장을 시공하는 한편 금성사 중앙연구소, 독립기념관의 防水工事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中央防水의 손길은 곳곳에 미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中央防水가 감당하고있는 역할은 엄청난 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더우기 우수한 防水劑를 開發한 것은, 1개기업의 번영과 용성을 떠나서 국내산업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防水業體의 先頭企業

中央防水企業(주). 이 회사는 강

地下鐵·댐 등 用途다양

토목공사의 大型化·地下化에 따라 防水劑의 高級化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따라 柳사장은 地下鐵·댐 등 대규모 정밀토목공사에서 거의 완벽한 방수처리가 가능한 고성능 防水劑를 개발하여 지난 83年 5月 第6回 뉴욕國際發明展에서 金賞(合成실)과 銀賞(워터스톱) 受賞에 이어 금년 5月 第9回 뉴욕國際發明展에서도 金賞(워터루防水劑)을 수상했다.

우리나라 방수제의 품질을 世界의인 수준으로 끌어올린 이 中央방수제들은 바로 25년간 오로지 防水製品的 性能改良研究에 정진해온 柳사장의 執念과 刻苦의 結實이다.

8년간의 집중적인 研究와 5천여 만원의 研究費를 투입해 지난 76年 개발한 合成실(特許 第5246號)은

國優秀發明考案大會 金賞을 비롯
第18回 發明의 날 大統領 表彰등을
受賞한 製品으로 地下鐵工事 등에
使用되는 外國 防水劑를 대체, 年
間 數百萬 달러의 外貨節約 效果를
올릴 수 있게한 優秀發明品이다.

年間 賣出額 50億원에 7백여名에
게 일자리를 마련해 준 發明企業人
柳重根사장을 찾았다.

『成功의 열쇠는 信用입니다.』

發明 못지 않게 經營에도 成功한
그의 生涯 및 發明品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來日을 紹介한다.

〈編輯者 註〉

남구 서초동 59의 3에 위치하고 있
으며, 경기도 이천군 대월면 대대
리에 공장을 두고 있다.

특히 이 회사는 防水業界의 先頭
走者로 규모나 技術에 있어서 단연
最高를 자랑한다. 이 회사는 4반세
기의 전통과 함께 알찬 성장을 거
듭혔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年間매
출액 50억원을 헤아리는 中堅企業
이 되었다.

이 회사는 또 끊임없는 研究로
特許品을 發明하였고, 國內外發明
品展示會에서도 훌륭한 成果를 거
둠으로써 견고한 기반을 마련, 방
수에 관한 獨步의 位置를 차지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中央防水가 오늘날의 명
성과 관록을 얻기까지에는 실로 숭
한 努力이 필요했다. 더우기 創業
者이며 이 회사의 代表인 柳사장은
이 분야와 무관하게도 史學을 전공
한 인문계 출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弱冠의
나이에 이 業種에 뛰어들어 한 企
業을 일으켜 세웠고, 이 나라 産業
發展에 이바지함은 물론이요 현재
약 7백여명의 종업원들에게 일자리
를 提供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柳사장은 현재에 자만하
지 않고 보다 優秀한 防水劑의 開

發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山間僻村에서 出生

본래 柳사장은 전남 나주군 공산
면 백사리의 한 農家에서 出生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주고
등학교를 마치자 서울대 사학과에
진학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남들보다 앞질러 사
업에 착수했다. 그가 中央防水를
創業한 것은 1960년 3월의 일로서
지난 60년대초 日本을 방문했을 때
在日교포인 4촌형으로 부터 防水사
업이 유망하다는 권유를 받고 弱冠
에 이 생소한 분야를 개척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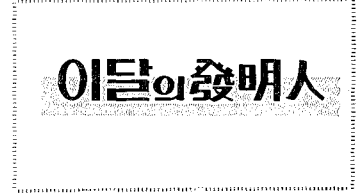
사학을 전공한 젊은이가 영똥한
분야에 손을 댄다는 것은 일종의
모험일 수도 있었다.

發明을 앞세운 企業

『처음에는 갈월동 우리집에서 시
작했습니다. 종업원은 열명쯤 되었
구요.』

柳사장은 中央防水를 設立하자마
자 東西南北으로 뛰었다. 그는 특
히 日本에서 技術者 두명을 데려왔
다. 오로지 防水劑의 研究開發과
技術蓄積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 것
이다.

그리하여 1973년에는 회사를 法
人體로 키웠다. 이때부터 中央防水



는 새로운 도약기를 맞이했고 국내
의 굼적굼적한 공사를 차지하면서
줄기찬 성장가도를 달렸다.

그러나 뒤이어 다가온 유류파동
으로 中央防水는 고전을 치러야만
했다.

柳사장은 회사가 어려울 때 부동
산을 정리, 과감하게 투자했다.

또 특기할만한 사항으로는 아무

도 흉내내지 못할 防水劑를 發明했
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시공한 건물을 헤아리자
면 한이 없습니다. 信用을 바탕으로
우리회사가 이만큼 成長한 것입
니다. 나는 항상 직원들에서 信用
第一, 品質第一, 人間第一을 당부
합니다. 우리회사는 지금 하자보수
반도 두고 있습니다.』

신용과 품질, 그것은 곧 인간의
성패를 가름짓는 열쇠라는 것이다.

그는 行動하는 發明企業人, 實踐
하는 發明企業人이다.

그는 꾸준히 發明하고 성실히 일
하는 가운데 이나라 防水業界의 第
1人者가 된 것이다. 〈W〉